

# 美 긴축 우려에 초대형 IPO까지... 사라진 '증시 1월 효과'

배당락일 지나 기관 매도세  
코스피 지수 2900선 머물러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주목  
공모 통해 자금 대거 흡수 전망  
美 연준 긴축 가속화 우려도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45.10포인트(1.54%) 오른 2972.48에 마감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통상 새해 들어 증시가 상승하는 '1월 효과'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긴축 우려에 수급 분산 효과가 나타나면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10포인트(1.54%) 상승한 2972.48에 장을 마감했다. 새해 들어 0.54% 하락했다. 지수는 2900선을 오르내리는 모양새다.

특히 배당락일이 지나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다. 기관 중에서도 연말 연초의 배당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의 자금 이탈이 가팔랐다. 지난 11일까지 6거래일간 기관은 코스피 3조 9953억여치를 팔아치웠다. 개인은 2조

221억원, 외국인은 1조8160억원을 매수해 증시 하방을 지지했다.

전문가들은 수급 이슈의 가장 큰 요인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꼽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7일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다. 공모가 최상단 기준 시가총액 70조원, 공모 예정 금액만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이번 공모 청약을 통해 증시 자금을 대거 흡수할 것이라 전망

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과거 대형 기업공개(IPO) 종목이 상장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2010년 삼성생명, 2014년 삼성SDS와 제일모직(삼성물산),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2021년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등이 상장하자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 대형 IPO 종목 상장에 따라 기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수급 부담으로 작

용했다는 설명이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월간 기준으로 IPO 종목 시총이 코스피 시총의 2% 수준이 넘으면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시총 70조원을 가정하면 코스피 시총의 3%가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상 단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펀더멘털한 시장 하락 요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을 펀드 내에 편입하려는 몰량 확보 경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코스피 200대형주 수급환경을 제약할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이 2차전지 대장주로 등극하면 모든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하는 수급은 국내 2차전지 ETF 중 KODEX2 차전지산업ETF 1조3000억원, Tiger 2차전지테마ETF 1조3000억원, Tiger KRX2 차전지

K-뉴딜 ETF 5370억원 등 약 3조원 규모로 신규 편입 수급이 예상된다"며 "각 ETF에서 LG화학의 비중은 각각 17.0%, 7.6%, 21.1%로 해당 비중이 그대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치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4438억원의 매수 수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의 부진 이유로 미국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도 꼽힌다.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록 공개 이후 금융시장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을 우려했다. 이날 의사록 공개 직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70%를 돌파하고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유동성 축소 우려에 시장이 타격을 입기도 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 우려는 최근 주식시장에 다소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1월, 3월 FOMC에서 이러한 우려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 주가지수 수준은 분할매수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조언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세계 최고수준 VR 기술 보유 XR 기반 메타버스 시장 선도

### IPO 간담회

#### 스코넥엔터테인먼트

국내 유일 '대공간 XR 워킹시스템' IEEE 채택... 글로벌 표준화 진행 중 다양한 산업간 연계모델 확보 추진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제작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오는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12일 스코넥은 온라인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스닥 시장 상황에 따른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스코넥은 세계 최고 수준의 VR콘텐츠 구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VR 멀미경감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 VR 1인칭 슈팅 게임(FPS) '모탈블리츠'를 출시했으며, 2017년에는 동일한 지식재산(IP)을 소니의 PSVR 기기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해 글로벌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스코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모탈블리츠 세계관에 기반한 신규 게임 3가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코넥은 VR게임뿐만 아니라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을 포함한 XR(확장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하는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

황대실 스코넥 대표이사는 "XR 등 초실감형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실과 가상의 상호작용이 점차 강화되고 경계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향후 음성, 동작, 시선 등과 같은 인간의 오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상호작용이 자유로운 몰입형 메타버스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코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



12일 황대실 스코넥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설명을 하고 있다.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수 인원이 동시에 가상현실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대공간 XR 워킹 시스템'을 핵심 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2020년 국내 표준으로 제정됐으며, 국제표준화기구(IEEE)에 표준화안으로 채택돼 글로벌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가상 공간의 규모와 참여자수에 따른 이동 및 캐릭터 모션 추적의 정밀성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XR 융합부문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스코넥은 메타버스 기술과 연계 가능한 XR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당 기술과 다양한 산업간 연계를 통해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을 확보할 방침이다.

황 대표는 "상장으로 조달된 자금은 컨슈머 VR게임, XR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및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등 연구개발자금, 마케팅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Real)과 가상(Meta World)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기술 선도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스코넥의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총 공모주식수는 222만6300주, 공모 희망 밴드는 9000~1만2000원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KB證, 인니 현지 증권사 인수... "동남아 톱5 도약"

### 밸버리證 지분 65% 확보 예정 1분기 내 인도네시아 법인 출범

KB증권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지배주주 변경 및 증자 승인'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 증권사인 밸버리(Vaibury)증권의 지분 65%를 약 550억원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KB증권은 밸버리 증권 지분 인수거래 종결 후 2022년 1분기 내 인도네시아 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이며 밸버리증권의 자회사인 밸버리자산운용도 손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밸버리증권은 2000년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증권사로 연간자기자본 이익률(ROE) 12.1%(2021년 3분기 기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18개 지점망을 보유해 리테일 브로커리지에 강점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증권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사업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17년 베트남 현지증권사(KBSV)에 이어 성장성 높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KB증권은 2017년 말 인수한 KBSV를 2021년 11월말 기준 자기자본 1960

억원, 총자산 4700억원의 증권사로 탄탄하게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IT서비스 및 자본력을 활용하여 대상을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톱(Top) 5 증권회사로 도약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는 성장잠재력과 인구 2억7000만 명, 세계 15위 GDP 규모 등 아세안 리더 국가로서 기 진출한 KB국민은행 등 4개 계열사와의 시너지로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 채권전문가 57% "한은 1월 금리 동결"

### 금투협 관련종사자 200명 설문 2월 BMSI 종합지표 85.5 집계

국내 채권업계 종사자 57%는 한국은행이 오는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43%는 기준금리 상승에 답했다. 3월 대선을 앞둔 부담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2월이 아닌 1월에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5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 조사해 '2022년 2월 채권시장지표(BMSI)'를 산출한 결과 종합지표가 한 달 전보다 2.4포인트(p) 하락한 85.5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금투협은 "한은의 1분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에 2월 채권 시장 심리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 인원의 응답으로 산출되는 BMSI는 100 이상이면 시장이 호전, 100이면 보합, 100 이하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부문별로는 금리전망 BMSI가 57.0으로 전월(71.0) 대비 악화됐다. 응답자의 45.0%가 금리상승에 응답해 전월(40.0%) 대비 5.0%포인트 상승했고, 금리하락 응답자 비율은 2.0%로 전월(11.0%) 대비 9.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2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전망은 금리상승 응답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물가 BMSI는 77.0으로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79.0) 대비 보합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미경 기자

### 신한자산운용

## 국내최초 中 투자 액티브 ETF 상장

신한자산운용이 오는 13일 중국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액티브 ETF인 SOL차이나육성산업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액티브ETF이자 신한자산운용의 첫 액티브 ETF다.

신한자산운용은 첫 액티브 ETF의 비교지수로 상하이거래소의 과창판(S TAR50)지수를 선정했다. 과창판 구성종목을 포함해 중국의 육성의지가 담긴 산업에 대해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SOL차이나육성산업액티브(합성)ETF'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수혜를 받는 산업에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접근한다.

/박미경 기자